

매주 생생한 실제 마음치유 사례를 통해 '마음읽기'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

WPI심리상담 사례 세미나에 참가하세요

8월 29일 특별세미나

'교사'가 교실에서 사라지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 &
울산 '섹시팬티' 교사 라이브상담 사례



어떤 교사는 파면, 해임 당하거나 지위해제 등의 처벌을 당하고, 어떤 교사는 자살을 하고.

그리고, 어떤 교사는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을 하는 진짜 교사들이 사라지고, 점점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른 채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모로서의 역할을 강요 당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교권 보호와 교사의 생존권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며, 또 이들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심리치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황심소 [긴급진단 및 원인분석]
2년차 초등교사는 왜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했나?
영상보러 가기 click!

황심소 [각자도생 시대의 마음해방, 통증해방]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정신병자가 되지 않게 하는 비법
영상보러 가기 click!

지난 7월, 강남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새내기 교사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바로 얼마 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힘들어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교사들은 검은 옷을 입고 추모집회에 참석하여 “진상규명”, “교사 생존권 보장”, “교육권 보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리로 나온 교사의 수는 어느새 4만.

WPI심리상담에 대해 학습하고 수련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WPI 성향으로 구분할 때 여러분 각자는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의 5가지 성향 중에 어느 하나의 뚜렷한 성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전형적인 ‘로맨티스트’ 마음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알아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진상규명을 해주세요.”**

진상규명이 된다면 나의 억울함과 안타까움이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호소이지요. 그런 외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교사들,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픔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WPI심리상담가라면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겠지요.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사건과 관련하여 위로와 공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던져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2020년, 울산 ‘섹시 팬티’ 교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누구보다 아이들을 아끼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하고자 애쓴 승주 선생님. 김 선생님은 황심소 라이브상담에 출연하여 어떤 상황을 쳐 자신이 천하에 죽일 몸살 아동학대범이 되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작 역시 누군가의 ‘민원’이었답니다.

아이들에게 자립과 효도에 대해 알려주려 내줬던 속옷 빨래 숙제는 한 때 ‘우수 교육 사례’로 표창감도 되었다가 결국 ‘아동학대’인 것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요.

학교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수업하고, 시험을 보게 하고, 점수 내면서 나이스 정보를 기입하는 요원으로 변신하는 동안, 어느 순간부터 ‘교육자’이기보다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나 교실에서 문제 생기지 않게 하고, 학부모의 민원을 담당하는 마치 학교라는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습득하게 되었지요. 이 와중에서 과도한 행동이나 생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잠재적 정신병 환자들을 미리미리 숨아낼 수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라는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검사에서 위험군, 관심군 등으로 분류된 학생들을 병원으로 보내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자 책임이 되어버렸고요.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의사에게 맡길 일’, ‘경찰에게 맡길 일’ 이렇게 구분하는 동안, 교사들은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건 예정된 수순이 되고 말지요. 교사가 교육적 활동을 하는 바로 그 역할이 ‘교권’이었는데 그것을 정신과의사에게, 학폭위나 경찰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생겨난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드러나게 된 것이랍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러 가기 ▶ <https://sites.google.com/view/whangsimso>

이것은 비단 교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닌 듯합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지 모르고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아픔이자,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우리가 진짜 직면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WPI심리상담'을 통해 찾아가 봅시다.

8월 29일 WPI심리상담코칭 특별세미나에 참가하세요!

- 일시: 2023년 8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참가비: 10만원
- 참가 방식: 온라인 (Zoom) 참여 또는 현장 참여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녹화 영상을 금요일 낮 12시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를 결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 직강!**

8월 29일 WPI심리상담코칭 특별 세미나
참가신청서 작성하러 가기 click!
또는 우측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특 터놓고 어려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황심소 NEW** 오픈 단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시라면 지금 바로 클릭!

[황심소] 교사들을 위한 심리상담소
<https://open.kakao.com/o/gtDNjPAf>

혹시 부모님이시라면 지금 바로 클릭!

[황심소] 아동청소년 고민 부모상담소
<https://open.kakao.com/o/gLDxiPAf>

WPI심리상담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팸플릿을 살펴보세요!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WPI심리상담코칭센터

02) 6263-2440 · 010-2203-7430 · wpipc@naver.com

WPI검사하기▷ wpipainfree.com · wpicenter.com

